

종보는 우리문중의 사적과 역사 그리고 일가분들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 일가분들까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坡州廉氏宗報

發行人 廉在熙
編輯人 廉宗桓
編輯委員 仁洙, 敏燮, 基洛, 左萬, 南燮
發行所 坡州廉氏大宗會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64
회산빌딩 403호
전화 323-6223
印刷所 현대종합문화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88-4

宗報 繢刊號를 내면서

大宗會長 廉 在熙



대종회 유일한 언론인 종보(宗報)가 85년 7월15일 창간된 이래 여러 사정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88년 11월1일자 제5호를 간행한 후 지금까지 간행이 중단 되었다가 5년 만에 속간하게 되었습니다. 속간을 반기면서도 늦은 감이 있어 한 편 일가분들에게 회장으로서 죄송한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90년 총회 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93년 봄 임기 말까지 지난 기간 중 각 지역 종친회에서 거출되는 분담금으로 겨우 대종회 경상비를 해왔던것이 그마저 각 지역에서 납입이 순조롭지 못하고 더욱이 사무실마저 없는 입장에서 우리 대종회가 거의 해체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욱이 각 지역간에는 융합이 안 되고 문화

되는 국면에 이르러 의견이 합일되지 못해 앞일이 암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조분들의 가호가 있어 대종회 창립 때부터의 문중 어른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대종회 기금적립을 위해 어려운 속에서도 협조해 주신 성과로 지금 약 5,300여 만원의 기금이 모여, 대종회 운영을 일신해서 각 지역 종친회에서 분담금을 거출했던 것을 끝내고 적립된 기금의 이자 수익금만으로 부족하나마 경상비 지출에 충당하는 한편 동호(東鎬) 고문님으로부터 연간 약 1,000만원이 소요되는 약 20평의 현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해 주시어 활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간에 임기가 만료됨에 조그마한 성과나마 이루하고 회장을 물리나려 하였던 것이 93년 봄 총회에서 또 부족한 본인에게 막중한 회장직을 중임(重任)하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종회는 다른 성씨의 문중에 비해 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힘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할일을 이대로 중단해 버린다면 조상님께는 면목이 없고 후손들

에게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삶의 의지가 좌절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문입니까. 우리 염문(廉門)은 고려 때부터의 명문거족으로서 중시조이신 충경공(忠敬公)께서는 충숙왕(忠肅王)때부터 우왕(禡王)대까지 6대왕을 모시면서 심한 원(元)나라의 간섭과 왜구의 침입 등 어려운 속에서도 약 60년간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다하시어 원(元)의 압박에 대항하여 많은 실지를 회복하였고 내정에서도 여러 제도를 혁신하며 이룩한 업적이 사가에 의해 높이 평가되어 왔었습니다. 후대에 와서 고려말 신군부에 의한 역성혁명(易姓革命)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갖은 모함과 폭력에 의해 1388년(무진)에 참화를 입어 일족이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의 절대 윤리인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켜 조선때는 임관(任官)을 하지 않았으나 국난으로 외침을 당할 때는 만사를 제치고 충절을 다한 빼대 있는 혈통의 가문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궁지를 위해서라도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의 대종회를 가졌던

처음의 정열을 상기하여 다시 우리는 화목으로 일치단결하여 기반을 튼튼히 하고 보다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다른 성씨에게도 자랑되고 후손에게 귀감이 되기 위하여 우리 문중에도 회관을 세우고, 영재육성을 위해 넉넉한 장학금도 마련하며, 선조분들의 유적도 찾아서 보전하며 일가 모두가 화기애애하며 상부상조의 꽃을 피워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 대종회 임원회를 열어 영천 채약산 염정동 산소의 정화사업을 하기로 결의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1년 총회 때 영천군 금호읍에 위치한 충경공 10대조 휘 현(顯) 이세조, 휘 국보(國寶) 삼세조 휘 치용(致庸) 세 분의 산소를 실묘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아무 조치도 없이 지내 오다 지금의 상태로 황량한 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산소 소재 임야를 매입하고 개사봉영(改莎封瑩)을 하려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그 임야를 매입할 수 없게 됨에 순서를 바꾸어 묘지의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허물어진 봉분을 돋우고

비석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 규모이기는 하지만 가장 뜻있고 보람된 사업임을 통찰하시고 이웃 일가분들께도 널리 홍보하시어 정성으로 쌓여지는 사업되게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밖에도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문중의 사당과 유적 등의 실태도 파악하여 대종회적 차원에서 운영도 하고 보전을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대종회는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대종회 기금도 전일기분들의 조그마한 성의라도 모여져서 일정목표에 도달케 하여야 될 것이고 여러 사람들의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여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고 그 업적을 상기하여 우리의 삶과 앞날의 영광된 번영을 위해서 종교, 지역, 연령, 빈부의 차이를 버리고 우리 일가 모든 계층이 슬기로이 참여하여 대종회에 힘이 되는 충고와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종인(宗人)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영광이 같이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93년 11월

大宗會소식

'93년도 총회

1993년 3월13일 오전 11시 현 대종회 사무실에서 93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92년의 회계 결산과 93년도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 전원을 선출하였다. 회장으로 전회장인 재희(在熙)씨가 중임되었다.

大宗會 任員(93년 3월)

정기총회에서 선임)

고문 泰勳, 東鎬, 基奉, 永夏, 吉正, 普鉉, 泰權
회장 在熙
부회장 昌勳, 庚桓, 瑤澤, 在均, 鍾建, 宇權, 琦燮, 凤哲, 喬台, 炳斗, 吉燮, 洪燮, 且祚, 德洙, 弘周
도유사 洪燮겸무
감사 相守, 東弼, 鍾洙

이사 仁洙, 伯均, 京根, 澤根, 英燮, 昌燮, 會順, 車澤, 澤龜, 聖壽, 秀東, 能洙, 得洙, 圭三, 英哲, 敏燮, 東秀, 東潤, 明勳, 洛元,

東翰, 東浩, 命秀, 增赫, 基瑢, 仁必, 相天, 泰復, 在萬, 南燮, 泰洙, 公勤, 學光, 秀一, 亨英, 寬燮, 鍾顯, 東鎮, 宗桓(상임)

각지역 종친회장

서울 吉正	부산 東鎮
수원 瑤澤	함양, 거창 相玉
대전 伯均	합천 德鎮
보령 東翰	대구 學光
공주 明勳	강릉 澤根
논산 東潤	춘천 敏雄
전주 東浩	홍천 東赫
광주 洪燮	강화 曾順
보성 琦燮(도유사)	인천 泰洙
충무 寧灌	안산 洛元

대종회 93년도 예산

수입	92년도 이월금	4421,729
기금이자		5,000,000
종보광고수입		500,000
계		9,921,729

지출

전화요금	400,000
사무비	600,000
출장비	600,000
회의비	1,500,000
향축대	300,000
종보간행	1,500,000
경조비	500,000
거마비	2,400,000
잡비	700,000
예비비	1,421,729
계	9,921,729

대종회 기금관리사항

93. 1. 13현재

계좌번호	입금원액	평가액
1. 210-000889-032-011	26,200,000	26,750,374
2. 210-000889-032-010	14,000,000	17,489,582
"	3,300,000	
3. 210-000889-032-021	3,000,000	3,293,789
4. 210-000889-104-011	6,000,000	6,170,556
계	52,500,000	53,704,301

93강화유적 보호관리위원회 예산안 확정

수입	이월금	204,412
	성금	3,500,000
	계	3,704,412원

지출	제수비(7상)	1,000,000
	도시락	1,200,000
	음료수, 술등	300,000
	통신·사무비	500,000
	별초, 기타비용	600,000
	예비비	104,412
	계	3,704,412

(한국투자신탁 동대문지점, 석류종합통장
예금주 파주염씨 대종회 염재희)

영천 채약산 염정골 산소 정화사업 설금 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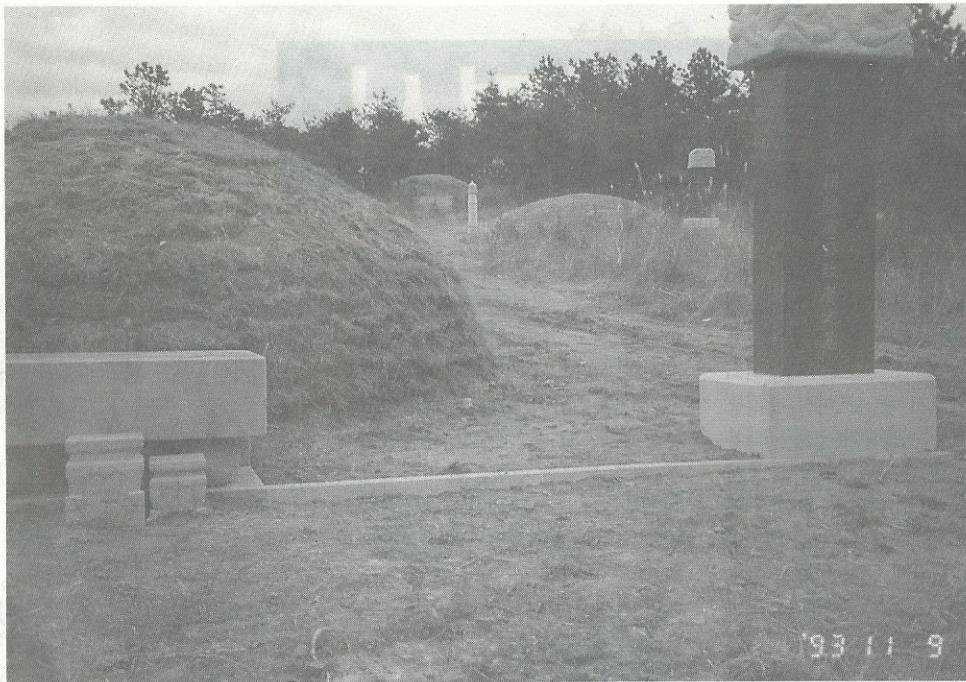
(단위 만원)

在熙 300, 부산화수회 200
琦燮, 瑤澤, 昌勳, 東鎮, 正水, 炳斗,
東鎬, 鍾建, 公勤, 吉正, 普鉉, 庚桓,
喬台, 東秀, 在均, 鍾建, 公勤
水原門中 각100
鴻武 宇權, 學光, 全州門中 각50
澤龜 20, 南燮 10

강화 時享

1993년 4월 11일 일요일에 참여인원 약 300명이 모여 93년도 강화 祀壇의 시향을 모셨다. 향사 후 사단 주변에 벚꽃나무 100그루를 식목하였다.

영천, 채약산, 염정골 산소 정화



영천·채약산 옆정골 산
소 정화.

宗親會 회원 명부 및 각종 자료

93년 9월 21일 임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93년 시제일인 93년 11월 16일 까지 산소의 개사봉영과 비석등 석물을 갖추기로 함께 11월 9일에 각지역 일가분들이 모여 1차 작업을 완료하였다.

93년도에 새로 임명된 대종회 임원과 각 지역 종친회의 임원명부를 작성 인쇄하여 배부하고 또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제각, 사우 등의 제사와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대종회적인 참여의 방법을 수립하고 여러 종친회

일가들이 제사에 두루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그 실태와 기록들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은 곳이 있으니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母影居士

생활의 禪

(꼭 이루워 지는 기도발생)

일하기 싫어 늦도록 술마시고
잣기에 일어 나기도 싫었다. 간신
히 늦게 일어나 지나는길에 귀찬
음을 무릅쓰고 돈많이 벌게 해 주
세요 라고 “기도” 했다고 하자 이
런 기도는 성취될 수가 없다. 그
러나 근면하며 참고 착하게 살면
서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며 살
겠습니다. 나에게 착한마음 더 주
시고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길 벗
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했다면 이런 기도는 꼭 드러주시
고 이루워 진다. 기도 할때는 돈
보다 더 귀한 신 불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어야 꼭 이루워지는 기
도가 된다.

옛 어른들도 스스로 돋는자를
돕는다. 혹은 盡人事侍天命이라
했다. 참으로 알기쉽고 행하기 쉬
운 갑진진리이다.

東亭

정도전이 본
동정공의 어진
마음

(廉仁洙)

先祖의 역사를 바로잡자

정도전(鄭道傳)의 「讀東亭陶詩後序」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동정(東亭)선생의 도시후서(陶詩後序)를 읽어보니 「춥고 배고픈 고통에 지치다 못했지만 유연한 즐거움이 있었고 술 속에 빠져서 세상을 몰랐지만 초연한 절개가 있었다」고

하였다. 삼가 이 글을 읽고 나도 모르게 탄식하기를 「아 이것이 바로 도연명이 된 까닭이다」고 생각했다. 선생이 말하기를,

도연명은 말세에 나서 시대의 어쩔 수 없음을 알고서 멀리 떠나 누추한 오막살이에서 마음을 정양(靜養)하며 벼슬을 티끌처럼 보고 만종(萬鍾)의 녹(祿)을 한푼어치도 못 되게 여겼으며 비록 의식이 곤궁하였지만 유연히 즐기어 근심을 잊었다.

조국이 멸망하여 세대가 바뀜에 이르러서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끌고 벼슬길로 나아갔지만 「우리의 도연명」은 그렇지 않았다. 끝내 본조(本朝)를 못 잊은 그 마음은 마치 청천백일(靑天白日)과 같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시주(詩酒) 속에 숨어 있었으니 그 높은 풍도와 뛰어난 절개는 저 매서운 추상(秋霜)과도 비교할 것이 못 된다.

시를 씀에 있어서도 근심을 당하면 근심의 시를, 기쁨을 당하면 기쁨의 시를 지었고, 술을 마시게 되면 술 마시는 시를 지었다.

여름날에도 노상 굽주립을 안고 있고 차운밤에도 이불 없이 잠을 잔다[夏日長抱飢 寒夜無被眠]. 동현 아래서 웃고 거들대며 다시 이생의 낙을 알았네. 또 차조 방아 찧어 좋은 술 빚고 그 술 익으면 나 혼자 따라마시네. 또 아침에 인의와 함께 살았으면 저녁에 죽은들 무엇을 다시 구하리라고 하였다.

대체로 도연명의 낙은 춥고 배고픔을 벗어나지 않고 그 절개 역시 그 봉통한 속에 있었던 것이다. 도연명이 만종의 녹을 불의로 보고, 전원(田園)을 낙원으로 여겼으니 이는 춥고 배고픔을 낙으로 삼았기 때문이요, 술에 의탁하여 끝내 그 지조를 지켰으니 그 봉통한 것이 바로 절개라 할 수 있다.

동정(東亭)이 도연명을 읽고 나서 기록한 소감은 이상과 같다.

내가 이렇게 도연명을 읊기게 된 것은 6백년전 최영의 손에 죽음을 당한 동정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때 최영(崔瑩) 조반이 동정을 이해한 이유는 백성들의 전답을 가로채고 관직을 팔아먹어 사욕을 채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東亭이라는 사람을 역사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염홍방(廉興邦). 고려 우왕 때의 권신. 국학(國學)의 전당 승문관(崇文館)을 중건할 때에 국고(國庫)에 의지하지 않고 사비(私費)를 들여 중건하였으며 홍진적을 쳐서 서울을 수복케 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종 이광(李光)이 조반의 토지를 탈취했다는 이유 하나로 최영에게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조상 국보(國寶) 홍방(興邦) 정수(廷秀) 삼형제와 그의 천여명의 인명을 살해하여 임진강이 핏빛으로 물들게 했다는 최영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를 봐야겠다.

그는 공민왕 3년에 원나라에서 원병을 요청하자 우리 조상 염제신과 더불어 대륙에서 용맹을 떨치기도 하였고 우왕 때 홍진적을 격퇴한 일도 있었다. 그 밖에도 제주에 목호(牧胡)들의 반발을 평정시킨 일도 있었다. 그러나 최영은 사람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것의 실례로 고려사 126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있다.

「40년에 우(禡)가 영(瑩)으로 더불어 비밀히 임견미(林堅昧) 염홍방(廉興邦)을 베기를 의논하여서 다시 영을 대중(待中)으로 제수하니 영이 이성계(李成桂)와 더불어 정방(政房)에 들어가서 임과 염의 쓴 바 사람을 모두 내치고자 허거를 이성계

가 말하기를 임과 염의 집정(執政)함이 날이 오래되었으므로 무릇 사대부가 모두 그의 학용(舉用)한 바이라 이제 다만 재능의 현부(賢否)를 물을 것이요, 어찌 이미 지나갔음을 허물하리오. 라고 하여도 영이 듣지 않았고 태조가 또 사람을 보어

영에게 말하기를 罪魁를 이미 죽멸(族滅)하였고 흉도(凶徒)를 이미 제거하였으니 이제로부터는 마땅히 형살(刑殺)은 그치고 덕혜(德惠)를 펼것이라 하여도 듣지 않았다.

양광도안무사(楊廣道安撫使) 최유경(崔有慶)이 임·염의 가노팔인(家奴八人)을 잡아 죽이고 사람을 보내어 도당(都堂)에 보고하거늘 영이 옥사가 밟지 않고 또 베어 죽임이

다하지 않았으므로 크게 노하여 그 사자(使者)를 베고자 하거늘 태조가 굳이 그치게 하였다」고 하였다.

동정(東亭)은 정도(正道)를 소중이 여기신 분이었다. 정도전의 「讀東亭陶詩後序」에서 기록했듯이 동정은 도연명의 절개를 높이 샀다. 혈 벗고 굽주리면서도 굽하지 않는 그의 절개를 칭찬하였다. 이것은 바로 동정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동정은 정도전과는 친숙한 사이였다. 정도전이 적소(謫所) 광주(光州)에서 동정을 생각하며 남긴 시고(詩稿)를 읊기기로 한다.

寒威尙未牧

稟冽侵人肌

殊方帶久客

短綿粉敝衣

차가움은 아직도 그대로여서
차가움이 살갗을 파고드는구나
타지에서 온 객이 오래 머물러서
솜옷이 가루되어 떨어지도다.

如何同洛南

不得相追隨

道里能幾許

每憶令人悲

公其白金玉

遠大以爲期

어떠한가 같이 남쪽으로 가는 것이
그리나 서로 따라갈 수가 없네
길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기억마다 사람을 슬프게 하네
공이 아름답고 거룩한 곁으로
원대히 돌아가게 기약하게나.

고려사에 염(廉)씨에 대한 사기

(史記)는 많이 남기었으나 그 사기는 많이 왜곡(歪曲)되었다. 여기에 대해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고려사열전권39(高麗史列傳卷三九)」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홍방(興邦)이 일찍이 이부(異父)의 형 이성림(李成林)과 더불어 무덤에서 돌아오는데 기추가 길에 찬지라 어떤 사람이 광대놀음을 하여 세력가의 노예가 백성을 괴롭혀 조세를 거두는 형상을 하니 성립은 부끄러워하였으나 홍방은 그것을 즐겁게 보고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은 홍방이 백성을 괴롭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으나 홍방의 인물됨으로 해야려 볼 때에 참으로 유치한 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사기(史記) 외에도 고려사에는 염씨 역사에 대해 부정적인 면이 거지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토록 왜곡된 기록은 이조말에 와서는 염씨를 역신(逆臣)으로 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조에서는 과거에서 염씨의 등용길을 막고 있었다.

고려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한 이색은 동정(東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었다.

「동정은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고 식견 또한 한 세상에 으뜸이리, 부귀할때는 부귀한 대로 살았고 환란을 당해서는 또 그 환경에 따라 살아가니 대체로 삶의 길을 자득(自得)한 것이 짚다고 하겠다. 나는 알전대 구름은 흩어져 가고 달은 솟아오르

며 물은 흐르고 바람은 솔솔 부는
그곳에 동정이 선뜻 세상을 잊고 우뚝 서니 거기에도 무슨 부귀나 환관 따위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육백년이 흘러간 오늘날에
이르도록 그때의 모욕적인 그 역사

를 제대로 바로잡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우리 문중에서라도 이름난 사학자가 나타났더라면 그 그릇된 사기(史記)는 바로잡을 수도 있었을 것을.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다. 나는

그때 역사 읽기를 좋아했다. 그런때
에 나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은 다음
과 같은 글귀였다.

「임견미(林堅昧) 염홍방(廉興邦)
등은 이인임(李仁任)의 심복이 되어
벼슬을 팔아먹고 공사의 토지와 노
비를 빼았아. 그의 전폭이 더욱 심하

더니 林·廉은 미구에 최영(崔瑩), 이 성계(李成桂)등의 협력하에 주참(誅斬)되고 말았다.

우리 후손들은 이러한 기록만은 남기게 해서는 아니된다.

이제는 할말은 해서 사실을 밝힐 수
있을 세상이다. 우리 종친회에서도

잘못 전해지고 있는 조상님들의 역사에 대해 사실을 규명해서 바로 전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설가)

忠敬公 神道碑의 영광

중경공의 우뚝한 성업 빛나는 이색(李稽)의 글, 뛰어난 이수(李脩)의 글 ……三絕

1987년 丁卯 11월에 경기도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에 위치한 충경공매현선조와 국파공, 동정공, 청강공 양세조 네 분의 사단을 세우고 그 입구에 세워진 신도비(神道碑)를 매년 향사 때마다 보면서 이북 옛 경기도 장단군 강남면 대곡리에 있는 월 비석의 생각이 나다.

이북에 있기에 찾아가 보지 못해
늘 아쉬움이 남더니 원묘역에서 가
까운 유서깊은 곳에 원비석과 같은
모양의 신도비를 세웠으니 얼마나
흐뭇하고 자랑스러운가.

원 비석이 이북땅에 세워진 연도를 추산컨대, 충경공께서 1382년 임술(壬戌)(우왕8년)3월18일에 79세로 돌아가셨고 유언에 따라 3일 후인 20일에 장사하였으니 비문을 짓고, 비석을 마련하며, 비문을 쓰고 전각하는 등 작업을 하는 데 시일이 걸

렸고 비문을 전각한 한수(韓脩)가 1384년에 별세하였으니 비석은 1382년에서 1384년간에 세웠다고 짐작된다.

문중의 족보 갑신보(甲申譜)(1708년) 서문에 보면 외손(外孫)인 승정 대부(崇政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홍수현(洪受憲)이 충경공 묘소를 찾았더니 신도비는 “이끼가 끼고 절반 이상이 깨어지고 모두 이그리 쳐서 겨우 자획이 알아볼 정도이고(중략) 봉분은 허무라진 채 잡초 속에 묻혀 있어 겨우 형상만 남았을 뿐이다. 나는 몹시 슬픈 생각이 들어 배회하며 한참 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豐碑缺拆過半 茹蝕而 僅識字畫
..... 墓宇 陷陥榛藪中 只有形址而
己余哀省 徘徊移日 不能去)는 내용
으로 보아 지금으로부터 약 285년
전인 갑신년에도 신도비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리
하여 처음 비석이 세워진 지 약 517
년이 지난 1899년 기해(己亥) 10월에
후손들이 신도비를 새로 세우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신도비를 새로 세

울 때 가능한 처음의 신도비 형태와 내용을 따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가 소장하는 신도비의 탁본에 의하면 새로 세운 신도비 원문 끝에 있는 추기에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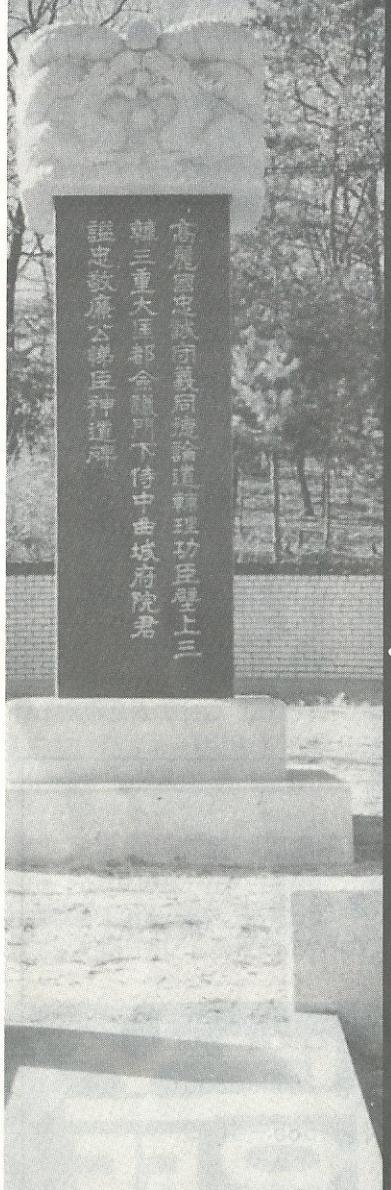
오호라 전조의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 염공(廉公)의 신도비문(神道碑文)은 목은(牧隱) 이문청공(李文清公)이 왕의 教旨를 받들어 글을 지었다. 염공의 우뚝한 성업과 목은(牧隱)의 빛나는 문장에다 또한 한수(韓脩)의 뛰어난 글씨로 이루어진 비석(碑石)은 가히 삼절(三絕)이라 할 것임으로 마땅히 오래 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고 돌이 많아서 글이 풍그려져 읽을 수가 없다. 훈업과 문장은 새로 비석을 세워 글을 쓰지 않고 전할 수가 없는 형세이다. 뒷사람들이 돌은 부스러져도 훈업과 문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후손인 재업(在業), 장수(章洙), 석구(錫九) 등이 의논하여 힘을 모아 역사를 했다고 한다. 1899년 기해(己亥) 10월 상순에 송병준(宋秉燦)이 추기하고 송도순(宋道淳)이 추전(追篆)을 하였으며 충경공 18세손인 우현(右鉉)이 삽과 추서를 한다(위)

문생략)

기해(己亥) 10월에 중경(重堅)

기해년에 중건된 신도비문 첫머리에 눈길을 끄는 것은 「韓山伯臣孝檣奉教撰」과 「清城君臣韓脩教書并篆」라고 쓰여진 글귀이다. 대서 신도비란 묘소로 가는 길목에 돌아가신 분의 평생 사적을 새겨 세우는 비석으로서 돌아가신 분의 벼슬이 보통은 종2품이상이 되어야 했고 비명도 당상관 이상의 문장가가 짓는 게 상례였다. 신도비문은 당대의 고관들에게 부탁하여서 글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친구나 제자들이 자의로 글을 지어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충경공의 신도비문은 한산백자색(韓山伯孝檣)의 봉교선(奉教撰)이고 청성군(清城君) 한수(韓脩)의 봉교서병전(奉教書并篆)이다. 즉 왕명에 의해 글을 지었고 왕의 하교에 의해 글을 쓰고 또 전각을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로서 얼마나 영광이었겠는가. 때문에 이 비는 왕명에 의해 준비된 나라의 역사로서 세워진 것이다. 두 번째 비석이 세워진 것에 대해 필자가 어렸을 때부터 선고(先考)께서 여러 번 들려주신 말씀이 기억난다. 충경공 비석을 새로 세울

때 문중분들과 조부님 형제분(석구
(錫九), 석준(錫俊))께서 소 세 마리
에 비석을 싣고 어느 고을을 통과하-
려는데 그 지방 선비와 폐거리들이
몰려와 길을 막고 못가게 하기에
(당시 비슷한 관습이 있었던 모양)
조부님께서 주동자와 대면하여 글을
논하며 타협하는 자리에서 글로 이-
기지 못하자 폭력으로 위압하려는
상대에게 불이 이글거리는 화로를
한 손으로 들어 던져 힘과 학문과
도리로써 상대를 짓누르고 비석을
세웠다고 하셨다. 처음 세워진 비석
의 크기는 알 수 없으나 두 번째의
비석은 턱본을 근거로 짐작건대 윗
부분 이수와 밑부분 대석말고 신고
가 약 180센티이고 신폭이 약 95cm
이며 신후(두께)와 전체 모양은 알
수 없다. 다만 신도비의 비문과 추
기의 자료가 있었음에도 수차의 족
보 편찬 때나 새로 신도비를 세울
때 이 자료 등을 전연 참고로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가필을 한 예
를 볼 때마다 미련이 남아 후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추기
의 원문을 싣는다.



高麗國忠誠府義同德論道輔理功臣壁上三
韓三重大匡都僉議門下侍中曲城府院君
謚忠敬廉公悌臣神道碑

종친간의 호칭

항렬이 낫다고 해라, 하
게는 곤란 ‘일가’, 종친’ 혹
은 이름 밑에 씨자 무난,
존경과 친화감이 담긴 바
른 말 쓰도록

—宗親間의 呼稱—

宗親 서로간의 호칭과 말의 높낮
이에 관해 신경을 아니 쓸 수 없다.
근간 가족들 간의 호칭에서나 남에
게 가족을 지칭하는 문제들이 심심
치 않게 대중매체에서 거론되는 경
우를 자주 본다.

옛날에는 각 집안의 관례나 지방
의 차이 혹은 양반과 서민의 구별등
에서 이러한 호칭문제를 일정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는 것은 우리의 화법이 아직
도 쓰이는 실제와 표준이 각기 다르
게 소통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가족간의 호칭은 그만두고라도 유
복친(有服親)밖의 다시말해서 면 일
가분들과 자주 상면케 되는 종친간
의 만남에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말
하고 호칭하는 것이 온당한가를 생
각해 보려 한다.

얼마 전에 선조님의 제사에 참례
하였을 때 자신보다 나이가 젊은 종
친에게서 학렬이 그분보다 아래라는
이유로 “여보게, 자네 요새 뭘하나”

식으로 말해 왔을 때 대답을 하면서
도 듣기 거북한 거부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다.
그분도 나름대로의 식견과 오랜 사
회생활을 통한 평범한 언어 습관을
갖고 있었으니까 충분한 문제의 제
기라고 본다.

그런게 쉽다면 만나지 않으면 될
게 아니냐고 쉽게 넘길 일이 아니
다.

옛날 양반계급에서도 아무리 학열
의 차이가 있더라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물론 비록 님이가
조금 적더라도 상대에게 자네니 하
게 하는식의 호칭은 하지 않았다. 유
복친(有服親)이라도 나이가 많은 아
래 행렬 친척에게는 서로 존대말을
써왔다. 반상이 엄한 계급사회속에
서도 신분에 걸맞는 점잖은 화법 호
칭, 치칭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현
대에는 젊은 사람에게도 서로 존중
하는 고운말을 쓰고 서로 경건히 행
동함으로써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전전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이다. 구
태여 옛식을 따르다고 해도 종친간
같은 행렬에서는 족형(族兄) 족제
(族弟)로 호칭하고 한 세대 윗분은
족숙(族叔) 혹은 아저씨로, 조부 학
열 일 때 대부(大父)라고 호칭하고
반대의 경우에 윗분은 아래 학렬
(行列)에게 족질(族姪) 족손(族孫)
이라 호칭할 수도 있겠으나 요새 와
서는 서로 ‘일가’ 혹은 ‘종친’으로 많
이 호칭하며 특히 윗분은 손아랫분
에게 이름밑에 씨자를 붙여 부르는

예도 많이 있다. 직계가 아니고 열
촌이 넘으면 호칭도 서로 친화감이
나도록 부르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
이 담긴 공손한 대화로 교류를 통하
는 것이 좋을 듯싶다.

보성 입향선조 기적비 건립

전남 보성군 봉덕면에 세거한 선조
諱浩(충경공 8세손)의 기적비가 그
동안 보성문중이 중심이 되어 건립
하였으나 주위 환경의 조경과 제막
식을 금년 내에 거행할 예정인 바
전체일가가 참여하는 유업이 되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여러 종인(宗人)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체국 계좌 501903-0002070 염철호

일가분들 소식

낙원(洛元)씨에 효자상

대종희 이사 낙원씨(22세손)는 93년
4월 25일 사단법인 민족문화 예술연
구원(이사장 윤병용)으로부터 효자
상을 받았다.

씨는 금년 56세로서 모친(김해 김복
수 92세)께서 노환으로 늙게 되자
현 거주지인 경기 광명시 교외 야산
밀 한적한 곳으로 이주하여 수년간
모친을 모셔왔다. 명망있는 서예
가로서 최근 ‘多枝同根愛(떨어져 있
어도 뿌리가 같은 일가들이 사랑으
로 화목하자)’라는 회호를 표구하여
대종희에 기증한 바 있다.

67년전 永川通文의 깊은 뜻

67년 전 永川通文의 깊은 뜻

通文이 공개되기까지

내가 이 통문(通文)을 접한 것은 84년 10월경이었다. 부산에 계시는 秀東일가로부터 통문을 받아 읽어보고 우선 그 애절한 호소에 비분강개 한 심정 이루 표현할 바가 없다. 이 통문은 비록 698자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었지만 지금부터 67년 전인 1927년 4월25일에 전조선 파주염씨 대종회를 영천에서 개최하고, 부근에 있는 선조분들의 산소를 성묘한 뒤 전국의 일가에게 보낸 것으로 한문으로 쓰여 있어 필자의 짧은 한문 지식으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은 진하(鎮夏)씨가 번역한 내용을 참고해 가며 읽었다.

여러 번 읽고 이해할수록 문장이 심정에 파고드는 감회의 도가 더해만 갔다.

심금에 전해지는 내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 의욕에서 미심쩍은 부분은 여러 사람에게 묻고 다녔다. 그래도 마음에 차지 않았던 차에 서울대 사범대 교수 방인태(方仁泰)박사와 성균관대 유학대 교수이며 세종대왕 기념관장 이해철(李海哲)선생에게 부탁했던 번역문이 가장 내 마음에 들었다.

파주염씨로서는 귀중한 자료인 이 통문은 지금의 종회가 발족한 4개월 뒤인 82년 2월경에 대종회에 전해졌고 여러 일가들이 영천 묘역의 현지 를 답사했으며 또 86년 8월 대동보

(大同譜)발행 전에 보소에 제출되었지만 하등 공식 논의없이 어떠한 의도에서인지 대동보에는 일언반구의 소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문의 내용을 무시하고 말았다. 그 후 거의 매년 대종회 축회 때마다 특정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 결론도 없던 차에 91년 축회 때 영천 묘소를 대종회로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문제 제기 후 꼭 10년이 걸린 셈이다. 67년 전의 대종회 결의를 추인하는 정도의 결론을 맺는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가 싶어 마음 한구석에 가시가 남는 듯하지만 대종회의 금번 결론은 뜻이 깊다고 본다. 얼마 전부터 행보는 느리나마 파주염씨 영천 염정동(廉政洞·염정승동)에 있는 재상공(宰相公) 휘 현(顯), 서성군(瑞城君) 휘 국보(國寶), 참의공(叅議公) 휘 치용(致庸) 3위의 묘소는 축간용축 좌큰파(丑艮龍座坤破)가 구보 묘소록(舊譜墓所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하니, 처음에 이 말을 듣고 흐르는 눈물이 웃소매를 적시는 줄도 알지 못하였다.

이 글은 통유(通喻)하는 일이다. 천지와 더불어 한가지로 존재하는 것은 기(氣)이고 만고를 빛쳐도 어둡지 않는 것은 심(心)이니, 마음이 뭉친 바의 기(氣)가 흩어질 수 없음은 이치(理)의 당연한 것이다.

우리 염씨(廉氏)는 본디 고려(高麗)의 오래 이어온 집안으로 이름난 재상과 높은 덕이 있는 분들이 대대로 이어 받았으니, 동방의 명족(名

族, 이름난 겨레붙이)이라 할 수 있고, 고려의 국운이 막히어 바깥 때는 특히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는 정성을 다하였다.

아아! 저 간사한 소인배들이 터무니없는 일을 꾸미고, 못된 짓을 함부로 하여 무진지화(戊辰之禍)를 만들어, 혹은 삼족이 멸하거나 혹 삶을 보전한 사람도 사방으로 정처없이 떠돌아다녀, 조상의 분묘가 그 사이에 많이 알 수 없게 되었으니, 비록 뗀나무를 하는 무식한 자손이더라도 원한의 마음과 울분의 기운이 뼈에 사무쳐 이를 갈지 않는 자가 없다. 천륜은 미리 도모한 일이 없는데도 같은 것이다.

지난 을축년 2월경에 경산 종인(慶山宗人) 재경(在敬)씨의 통고인 즉, 영천군 남면 채양산 아래, 염정동(廉政洞·염정승동)에 있는 재상공(宰相公) 휘 현(顯), 서성군(瑞城君) 휘 국보(國寶), 참의공(叅議公) 휘 치용(致庸) 3위의 묘소는 축간용축 좌큰파(丑艮龍座坤破)가 구보 묘소록(舊譜墓所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하니, 처음에 이 말을 듣고 흐르는 눈물이 웃소매를 적시는 줄도 알지 못하였다.

이 날 종회를 소집해서 수삼인을 보내어 그 실적(實績)을 탐방하였더니, 과연 그의 말과 같았다. 그러나 가까운 동네에 사는 이른바, 박해영(朴海英)이란 자가 그의 모친의 묘를 재상공 묘(宰相公墓) 섬들 아래 가까이에 쓴 지가 지금부터 40여년 되었다. 그러니 자손이 되어 숭배할 땅이라고 할 때, 귀로 차마 듣지 못 하겠고,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것 이었다. 전년 4월경에 몸소 가서 성

배(省拜)하고 그 암장한 무덤을 본즉, 모골이 송연하여 분함이 더할 나위없이 심하였다. 가까이 사는 일가들을 불러 모으고, 또 순사부장과 주민 등 수백명이 입회한 가운데에 개사초(改莎草, 무덤의 떼를 갈아 입힘)와 봉영(封瑩, 무덤에 봉분을 힘)을 한 뒤, 당일 사실을 여러 지역의 일가들에게 돌려가며 알렸더니, 요즈음 거의 한 돌(一朞) 가까이 되어서야 여러 일가의 공의(公議)에서 생각이 일치되었다.

이에 금년 음력 4월25일 전선대종회(全鮮大宗會)를 경북 영천군 영천면 원내리 염준회(廉俊燭)씨 집에서 개최하여 이와 같이 다시 고한다.

생각하건대 우리는 조상을 같이 하는 여러 자손이니, 비록 천리 밖에 격하여 있더라도 차례대로 전달하여 회의에 참여해서 선조의 묘정(墓庭)에 같이 성배할 수 있은즉, 그 즐겁고 기쁜 일을 회복함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는가?

깊게 판 우물물은 오래 흐르고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한 것같이 효도를 구진히 다하면 자손이 번창한다는 것은 변치 않는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그 조상을 잊고 한갓 자손만 사랑하는 자는 하늘이 반드시 이를 미워하니, 만약 세속의 적은 연고로 인해 이리 미루고 저리 평계하면서 홀로 이번 모임에 빠지는 자가 있다면 귀신의 눈을 어찌 염폐할 수 있으며, 조상의 책망을 어찌 도피할 수 있으며, 천하의 여러 지덕을 갖춘 어른[君子]의 꾸짖음에 어찌 답할 수 있겠는가?

천운은 순환하여, 오늘의 이 모임이 있게 되었으니, 일어진 세진 밑에

남은 알을 다시 기른다(覆巢之下 餘卵更育)면, 봉황 원로(鳳凰鵠鸞·즉 조정에 들어선 백관(百官)의 비유)의 어린 새(雛·자제(子弟)의 비유)가 어찌 그 중에 나지 못하겠는가?

하물며 교남(嶺南·영남(嶺南))은 본디 공자(孔子)·맹자(孟子)의 고향임에라! 그리고 한훤당(寒暄堂)·김평필(金宏弼)·일두(一蠹)·정여창(鄭汝昌)·회재(晦齋)·이언적(李彦迪)·퇴계(退溪)·이황(李滉)의 집안에서 조상을 받들고 후손을 가르치던 절차는 문체와 바탕이 서로 갖추어져 아름답고 훌륭하며, 기타 각처의 거실 명족(巨室名族)도 수연(粹然)히 즐비하다. 그들이 보고 들으며 염상공(廉相公)의 후손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찌 우리 염씨의 광자(光紫·광명 光明)가 되지 않겠는가? 통문을 열람한 후, 비록 한두 집의 남은 일가라도 기일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한 집안이 회목으로 단합하고 백세(百世)의 일을 다한다면 심히 천만 다행하겠다.

위와 같이 각 도·군 여려 일가(宗人)에게 공경하여 통지한다.

좌하(座下)

정묘년(1927년) 2월25일 발문(發文)
염재청외(廉在淸外) 연명(連名) 14인

원문생략

(이해철 교수=번역)



보령 水絃祠

미산면 용수리에서 웅천 면 죽청리로 이전 보령댐 건설로 서해안 관 광지로

충남 보령군 미산면 용수리에 있는 수현사(水絃祠)는 72년 전인 1921년에 창건되어 충경공, 군파공, 송은공, 경은공 선조 4위를 모시고

매년 음력 9월 중정일에 유림재향을 드리고 있다. 지방문화재 142호로 지정되어 있다. 금번 보령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지구가 되어 연내 보령군 웅천면 죽청리 산2번지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었다. 새로 옮기게 되는 이곳은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웃에 무창포, 대천, 춘장대 등 해수욕장과 성주사, 무량사 등 유적과 명승지가 있다.

〈보령종친회장 東翰〉

서예가 鳳哲씨 휘호 보 내와

부산에서 오랫동안 서예학원을 열고 직장인, 가정주부와 학생들에게 서예지도를 하여 지방유자들에게도 명망이 높은 봉철씨로부터 대종회의 발전을 염원하며 '千古功名 輝史筆
一生忠義 生天賀(문중의) 오랜 공명

은 역사에 빛나고 일생의 충의정신은 하늘이 경하한다)'의 휘호를 보내 왔다.

동찬씨 사망

전 전주종친회 회장이고 수차 대종회 부회장직을 역임했던 동찬(東贊)씨(21세손)가 93년 6월10일 숙환으로 전주 자택에서 별세하였다.(향년75세) 씨는 전주 정읍생으로 이리 시장 등 다년간 관직생활을 하면서 대통령 공로표창 등 많은 포상을 받았으며 슬하에 장남 창섭 외 2남녀가 있다.

祝 속간

元代企業株式會社

代表理事 廉英哲
社長

서울 종로구 승인동241~1

원대빌딩

전화 253-2411~5

235-8611

廉澤龜眼科醫院

醫學博士 廉澤龜
안과전문의

서울 中區 乙支路 二街 101-2

전화 병원 267-3865

자택 585-4619

通文을 접한 우리의 각오

이 통문 내용을 요약하면

1) 영천에 사는 종인 재경(在敬)씨가 영천 묘소에 관한 사정을 통보해 음에 따라 종회에서 수삼인을 보내 답사를 했고,

2) 영천 묘소가 구보에 있는 기록과 합치하였고 타성의 묘가 편장된 것을 보고 분개하였으며,

3) 순사부장을 입회시키고 근거종인과 주민들 수백인이 모인 자리에서 묘의 개사봉영을 하였고,

4) 지금부터 67년 전인 1927년 4월 25일 영천에서 파주염씨 전선대종회를 개최하고 이 사실들을 전국 종인들에게 알리는 글(통문)을 작성 배부한 것이다.

통문 내용에는 없지만 그 후 종친들은 묘역에 편장된 상대에 대해 재판을 하여 1928년 9월 6일에 대구 복심법원에서 판결되기를 타성이 편장을 인정하고 이장함에 있어 그 비용을 지불하라는 첫 판결을 받고, 이것을 이행하지 못해 이장을 못한 지금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지역 종친 어른들의 구전에 의하면 그분들도 어릴 적에 어른들과 함께 성묘를 다녔으나 일제말에 관리가 소홀한 틈에 타성이 편장을 했고 그 후 태평양전쟁, 해방 등 격동기에는 성묘마저 소홀해졌다고 했다. 지금의 대종회에서도 초기에 이 사실을 알고 현지답사를 하였지만

한결같은 의견이 비석이 없으니 실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구보에 기록이 있건 그 지역에서 대대로 성묘를 했건, 67년 전 대종회에서 확인을 했건, 비석이 없으니 궁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해되지 않는 논리이다. 우리가 가끔 죽보를 보고 느끼는 바는 고려조에 영광스러웠던 염문의 가세와 충경공이 돌아가신 후 신홍 군부세력에 의해 무진자화로 2세 세 분의 형제들이 돌아가신 후 3세 후손 다섯 분의 은거하신 행적을 보면 그 절의와 당시의 실정을 짐작하여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갖은 수단을 다하여 역성혁명을 끝낸 이성계는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고려 명문가 후예들에게 시관을 권유하지만 대다수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어쩌다 경은공과 아드님 판서공께서 시관을 하게 된다. 유화정책이 표면적인 명분일 뿐 결

국은 여러 구실을 다하여 오명을 씌워 도태 당하고 미는 과정을 볼 때에나 지금이나 도세에 비정한 심리를 엿보게 한다. 유화정책에 희생된 경은공은 참의의 벼슬에 사신으로까지 이용하고는 귀양, 관노의 신분으로까지 처결되었고 늦추어 영천에 자원부처된 후 정종, 태종, 세종조까지 당시의 조정에 아부하는 관속들에 의해 더이상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상소가 여러 번 있었던 사실을 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처지의 경은공이 당신의 연고지인 영천에다 선조를 모시고 당신마저 묻히는 산소에 비석이나 제대로 세워졌겠느냐는 것이다. 비록 비석이 세워졌다 해도 그때의 비석이 마모, 손상되어 현존했을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 시세의 비정과 후손들의 무성의로 방치되어 있던 묘소가 67년 전 조상분들이 구보에 의해 산소를 확인하고 감격하며 편장된 사실

에 비통하고 단결을 호소한 이 통문은 우리 문중의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사소한 실마리라도 찾으면 사당을 짓고 하다가 그것도 없으면 설단이라도 해서 제사를 모시는 정성들은 한국 전통윤리의 자랑이다.

가치관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 기회에 일가분들의 적극적인 정회사업의 참여와 분발로 우리 염문의 영광과 성과를 드넓리는 바탕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忠敬公의 詩想

음력 2월은 이순(耳順)의 노인 몸 으론 아직 추운 날씨다. 더욱이 난(亂)을 피해 남쪽으로 밀려와 해매는 임금을 모시는 노재상으로선 정신적으로도 피로했으리라. 돌아켜 생각해 보면 파란만장의 세월이였다.

6세의 어린 나이에 부친의 사망으로 외조부택에 얹혀 살다가 11세 때에는 원나라에서 平章事 벼슬에 있는 고모부 말길(末吉)의 집으로 가서 25세 때 처음 귀국해 어머님을 뵈울 때까지 먼 타국에서 고아의 신세로 성장했었다.

태어날 때부터 나라는 봉고에 굴복해서 부마국으로 전락되어 원의 오만간섭을 다 받아 오면서도 간신들이 횡행하여 민심은 혐악해지는 때에 거란·여진(契丹·女眞)이 침범 하더니 이제 또 더하여 홍진적(紅巾賊)이 대군을 이끌고 침범함에 왕을 모시고 눈비를 맞으며 남으로 피난 해 오는 동안 이천(利川)에 이르렀을 때 서울인 개경(開京)은 함락되고 그 세력은 안변 원주(原州) 지역 까지 뻗쳐, 오만 횡포와 약탈을 다하였다. 이렇듯 와중에도 충신들의 분투로 적을 물리치고 서울을 탈환하

였음에 그 동안 머물던 복주(福州) (지금의 안동)를 지나 보은(報恩) 원암역에 이르렀다.

이때 우리 중시조(中始祖) 이신 충경공(忠敬公)은 59세이시고 벼슬은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곡성후(曲城侯)에 봉해져 좌정승직에 있었다. 환궁의 기쁨보다 노재상 충경공께서는 황폐화된 나라의 복구와 굶주림의 백성을 구하고 지금껏 섬기던 원의 쇠퇴에서 오는 혼란과 중국대륙에서 태동되는 반원 새나라 건설의 와중에서 이 나라를 보전 육성하여 되는 앞날의 일들이 걱정이 된다. 긴 세월을 어렵게 살아온 일곱분의 노재상과 자리 를 함께하니 심기가 착잡하다. 술상이라도 마련하여 어지러운 상념들을

일시나마 쉬게 하고 싶었으리라. 품속으로 숨어든 이른 봄의 추위와 어수선한 거처 분위기 속에서도 술자리를 마련하니 노랫소리, 술향기 어울리는 속에 여러 잔을 비우니 한수의 시가 없었겠는가. 오래 산 늙은 이들이 서리 내리는 속에서 잠시나마 어지러운 마음을 잊고 술향기에 젖어 보자는 마음에서일까. 운(韻)을 칠언율시(七言律詩)로 향기 향(香), 긴 장(長), 서리 상(霜)으로 했다. 먼저 충경공께서 붓을 들어

筆落珠璣字香過雲歌裏引盃長
半酣更覺君恩重坐到深更冷欲霜
(구슬이 떨어진 듯 영롱한 글자마다
향기로운데 아름다운 노랫소리 들으
며 오랫동안 술잔을 들었소
거나하게 취해도 문득 생각하니 임

금님 은혜 새삼 무겁고 깊은 밤 았은 자리 차가워 서리 내릴듯 하네)

임금의 아가를 호위하고 복주에서 청주를 거쳐 보은 원암역에 이르렀을 때 7명의 노재상이 모여 운에 맞추어 시를 지었다는 제하에 같은 운으로 여말(麗末)의 대학자 익제(益齊) 이제현(李齊賢) 역시 여말의 명필 행촌(杏村) 이암(李庵) 그 밖에 회산(檜山) 황석기(黃石奇) 율정(栗亭) 윤택(尹澤)의 시가 전해지는 바 여기선 略(略)한다.

벽강(碧江)

—남산 할아버지의 「속 남산일기」—

廉仁洙씨 출판기념회 문학역정 47년 기려

93년 7월1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21세기 신문화연구소 강당에는 많은 문인들과 종친회 임원, 그리고 문중 인사들이 모였다. 염문(廉門)의 21세손 인수(仁洙)선생의 수필집 「속 남산일기」에 대한 출판기념회가 열린 자리였다.

1912년 전안군 용담에서 출생, 동경농대에서 육종학을 수학하고 대전 농사시험장에서 일하면서 46년에 단편소설 「감자」를 〈民聲〉에, 「작은 선풍」을 〈新天地〉 등에 염인묵(廉仁默)이란 필명으로 발표하였고 모 일간지에 「流轉」이란 제목의 소설을 연재한 바 있고, 47년에는 「기다리는 마음」을 〈예술조선〉에 염병두(廉炳斗)의 필명으로 당선된 바도 있다. 1950년 문학동명 대전 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월북 작가들과 교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육고를 치렀다. 출옥하고부터 은둔하면서 고생스런 밑바닥 생활을 계속했다. 1988년 월북 작가들의 작품이 해금되면서 염인수씨는 소설집 「장위고개」를 시작으로 그 동안의 막혔던 창작의 봇물이 터져나오듯 노익장의 정력으로 작품 활동을 재개하였다. 87년 11월에 염인수 창작집 「懷古」, 89년 4월에 장편기록 소설 「깊은 강은 흐른다」, 91년 10월에 수필집 「南山日記」 이후의 작품이 이번의 「속 남산일기」다.

이날 출판기념회서 국제 팬클럽 회장 문덕수씨, 경기도 문화협회장 김진식씨 등은 축사를 통해 선생의 작품을 역경에 얹눌려도 의연할 수 있는 기백과 각박해지는 인심 속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이 작품마다 흐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서전적인 글은 80평생 땀과 의지의 결정으로 빛나고 있다고 친시를 했다. 이어 문학동료와 후배들의 현시낭독과 축가 등으로 「염인수 문학」을 위한 소담한 잔치가 베풀어졌다.

대종회 이사이기도 한 선생은 금년 82세의 고령에도 오래 전부터 종친회 운영을 위해 늘 자문과 협조를 해주었으며 근간은 21세기 신문화연구원의 지도위원으로 주1회 이상의

강연회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슬하에 장남 재훈(在薰)을 비롯하여 4남 2녀가 있다.

선생의 작품 「깊은 강은 흐른다」에서 일부를 소개한다.

말못할 사연 영겁에 묻고
비내리는 백운을
눈 날리는 도봉을 보며
세월의 매듭은
백발이 되었구나
북한산 위 흰구름아
조각 조각 추억 싣고
머나먼 길 오가건만
추억의 그 상처는
상여매는 노래같아
젖은 눈 고개들어
하늘을 보네

초동의 비 옷자락 적시며

끄는 리어카 무겁기만 한데
발아래 고갯길엔
택시와 버스의 행렬

그 속에서 나를 보고 단 한 사람
손 훈들기를 해질 때까지
기다려 보아도 그런 게 없는
비내리는 장위고개
슬프기만 하여라.

任員會 消息(93.9.21)

대종회 사무실에서 채약산(採藥山) 염정동(廉政洞) 산소 정화사업을 중심의제로 한 임원회를 갖고 우선 산소 소재 임야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매입이 어려워짐에 더이상 사업을 자체할 수 없다는 점을 보고, 묘지의 지성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봉본의 허물어진 부분을 돋우고 비석을 세우기로 하고 약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전국에 있는 일가분들의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祝 채약산 정화

서울 종친회

회장 廉吉正

부산 화수회

회장 廉東鎮

대전 종친회

회장 廉伯均

수원 종친회

회장 廉珪澤

대구 종친회

회장 廉學光

전주 종친회

회장 廉東浩

忠敬公의 軍事활동

—忠敬公의 軍事活動(國防改革을 中心으로)—

홍영의(洪榮義)씨를 처음 만난 것은 92년 가을이었다. 선조분들의 행적을 보다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 세종대왕 기념관장으로 있는 이해철 교수를 방문했을 때였다. 그날 이교수가 잠시 외출중이라 기다리다 옆방에 들어가 고려사 번역본에 관해 물었더니 아주 자상하게 소개해 준 청년이 있었다. 그분이 홍씨였다. 당시에는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 헤어졌다.

금년 여름 그 젊은이 홍씨가 우리 문중의 오래된 족보에 관해 질문을 해왔다. 전화상이었지만 남의 선조에 관해 깊이 아는 바가 많은 것부터가 이쪽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그는 오래전 세종대왕 기념관에서의 인연을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은 당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또 여말(麗末) 무진지화(戊辰之禍)에 동정공(東亭公)과 함께 회를 입은 충정공(忠敬公)의 큰사위 되시는 남양인(南陽人)

人) 당성군(唐城君) 洪徵의 34대손이라고 밀해 준다. 우리 족보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사연을 물었더니 “국방개혁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공민왕(恭愍王)의 반원정책(反元政策)과 염제신(廉悌臣)의 군사활동”이란 제목의 91년에 쓴 논문을 보여주며 자신은 박사과정의 학생으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찾는다고 하였다. 원고지 150매가 넘는 분량의 논문을 빌려와 읽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상한데 놀랐고 충경공을 연구한 성의가 필자가 아는 한 우리 일가 젊은 분 누구보다도 지극했다. 부끄럽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논문에서 틀린 글자를 일리주고 의문점을 보충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하며 앞으로 참고가 되는 점의 의견을 나누기로 약속하였다. 무진지화(戊辰之禍)를 전후한 우리 선조분들의 잘못된 사료들의 진상을 밝히고 바로잡아 후세에 전하는 노력이 지금의 세대가 꼭 해야 될 과제라고 믿으면서 이 자료가

그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특히 우리 일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하여 또 그 후세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논문줄거리에 영향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가필하여 글을 신는다.

1. 머리말

고려 후기의 사회는 매우 복잡한 기간이었다. 이 시기는 려원(麗元) 관계의 재편성 과정에서 고려사회가 각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때였다. 원의 직·간접적인 외압으로 고려 본래의 지배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지배세력인 원과 고려의 왕 사이에 편승한 친원세력의 등장은 이 시기 정치사의 또 다른 특징을 지닌다.

한편 이 시기는 고려사회 내부구조의 변질로 사회·경제적 토대 또한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러 고려사회가 해체의 길을 걷는 출발점이 된 때이다. 농민충의 유망(流亡) 확대(擴大), 인구의 감소, 농지의 황폐화, 권세가에 의한 토지집탈 등으로 군인전을 매개로 한 본래의 군제 붕괴가 이 시기에 걸쳐 발생하였는데 고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14세기 초를 중심으로 한 개혁정치였다. 충렬왕 22년의 홍자번(洪子藩)의 ‘편민십팔사(便民十八事)’ 충선왕의 2회에

걸친 개혁(既位·復位改革), 충숙왕, 충목왕 및 공민왕의 네 차례에 걸친 개혁이 그 구체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염제신(廉悌臣)의 생애는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변화에 순응하면서도 친원세력이나 그 부류들과는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권세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원의 평장사(平章事)인 고모부 말길(末吉)의 집에서 청년기를 지내는 한편 원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등 원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고려에 귀국하여서도 정동성(征東省) 낭중(郎中)으로 활동하면서 충숙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기도 하고, 공민왕으로부터는 왕의 일련의 적극적인 반원정책과 관련하여 군사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실질적 후원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염제신의 생애는 당시 고려와 원의 국제질서 속에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 대부분의 친원세력들과는 상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廉悌臣의 생애

고려-원 관계를 배경으로 권세가(權勢家)의 집안에서 충렬왕 30년(1304)에 태어난 염제신은 원과 고려에서 꾸준한 관직생활을 하면서 충숙왕 아래 우왕대까지 6개대에 걸쳐서 근 60년 동안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생애 79년을 시기별 특성으로 구분해 보면 대체로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원에서의 성장, 활동기를 1기로, 원의 내정간섭이 본격화되는 충숙왕대로부터 충정왕대의 활동기를 2기로, 반원정책을 단행한

공민왕과 우왕대를 3기로 그 성격을 파악해 보았다. (표 1)

염제신의 집안은 서원(瑞原) 염(廉)씨 가문인데, 충렬왕의 측근세력이었던 염승익(廉承益)이 그의 조부이다. 염승익은 조인규(趙仁規), 흥자번(洪子藩)과 더불어 정권을 천단하면서 왕권을 배경으로 토지겸병 등을 통하여 막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등 당시 최고의 권세가로 지목받고 있었다. 또한 역관(譯官) 출신으로 원의 유력한 가문과 고려 국내의 문벌과 통혼(通婚) 관계를 맺어 당대 최고 권세가로 성장한 조인규의 딸과 자신의 아들인 세충을 혼인시키는 한편 자신의 3녀 중 1녀를 공암(孔岩) 허(許)씨인 허호(許嵩), 2녀를 원의 평장사인 말길(末吉), 3녀를 심양왕고를 옹립하여 했던 曹적과 혼인시킴으로써 서원 염씨 가문은 이를 바탕으로 원의 외압에 의해 새롭게 대두한 권세가와 혼인관계를 통한 가문의 중첩형태를 지니면서 새로운 권문(權門)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가문에서 태어난 염제신의 아명(兒名)은 불노(佛奴), 자(字)는 개숙(懶叔)으로 6세(충렬왕2)에 감문위(監門衛) 문호군(大護軍)을 지낸 부(父)인 세충(世忠)을 여의고, 모(母)인 조씨와 외가에서 생활하다가 11세의 나이로 원에 들어가서 평장사인 고모부 말길(末吉)의 집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자신의 가문을 배경으로 그리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원에 들어간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이 기간이 바로 그의 생애 1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는 여몽(麗蒙) 전쟁이 종식된 뒤 새로이 전개된 여원 관계 속에서 고려의 정치질서가 재편성되어 가던 때였다. 또한 위로부터의 정치력 부재와 아래로부터의 사회·경제적 모순이 동시에 노정되어 제 개혁안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 개혁정치는 원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기 상이한 정치세력은 원과 고려를 중심으로 그 이해를 달리하여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충렬왕과 충선왕의 단위(禪位), 충선왕과 충숙왕의 양위(讓位)와 같은 일들이 그러한 가운데 일어났다. 고려의 국내 정세가 이처럼 복잡하게 전개되는 동안에 염제신은 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충숙왕 11년(1324), 염제신이 20세가 되던 해에 원에서는 철실(鐵失)이 영종(英宗)을 사해하고 우승상(右丞相) 배주(拜住)를 죽여 진왕(晋王) 아손철목아(泰正제)也孫鐵木兒(泰定帝)를 옹립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고모부 말길과 함께 화림(和林)에서 어가(御駕)을 맞이한 염제신은 태정제(泰定帝)의 눈에 들어 황실(皇室)에 숙위(宿衛)가 되는 계기가 이루어졌다. 태정제의 신임을 얻은 그는 태정제의 자문에 응하면서 관계진출의 빌판을 마련하고, 수년간 시종하다가 충숙왕 16년(1329) 5월에 오랫동안 어머니를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휴기를 얻어 금간산 어향사(御香寺)로 귀국, 충숙왕에게 술과 의복을 전하여 주고 다시 원으로 들어가 상의사(尙衣使)를 제수받았다. 그리고 얼마 뒤 다시 어머니

를 봉양하기 위하여 귀국을 청하고 충숙왕 복위 3년(1333) 원의 순제(順帝)로부터 정동성 낭중(征東省郎中)을 임명받아 돌아 왔다.

염제신의 생애 2기는 충숙왕에서 충정왕대의 활동기로 그가 원에서 정동성 낭중을 제수받고 귀국한 때이다. 이 기간은 원의 거듭된 왕위 교체로 왕권이 실추되고, 친원세력에 의한 입성책동(立省策動)으로 대원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던 때였다.

국가를 부정하는 입성책동은 고려 인에 의해서 3차례에 걸쳐서 제기되었는데 충선왕 4년(1312) 홍복원(洪福源)의 손자인 홍중희(洪重喜)의 계의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요양성(遼陽省) 우승(右丞)으로서 심양왕(瀋陽王)으로 봉해진 충선왕과의 세력 다툼에서 충선왕의 세력 기반을 없애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충렬·충선왕 부자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충숙왕과 상왕인 충선왕의 양위과정에서 상왕으로 원도(元都)에 머물러 있던 충선왕이 실각하자 충숙왕 10년(1323)에 濬陽王 고의 옹립운동을 전개한 오잠(吳潛), 유청신(柳淸臣) 등이 “청입성 차내지(請立省此內地)”라 하여 입성운동을 제기하였고, 충혜왕 복위 4년(1344) 이에·조의청·기철(李藝·曹益清·奇轍)에 의해서 “청입성 이 안백성(請立省以安百姓)”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입성책동은 고려에서 왕위계승과 이에 따른 제 지배세력들간의 이해를 달리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시된다. 더군다나 원은 고려의 내정간섭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동행성의 좌

우사(左右司) 및 이문소(理門所)를 위시한 제속사(諸屬司)에 많은 원인(元人) 및 원관료를 파견하여 그들의 내정간섭을 실질적 방향으로 전환시켜 가려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염제신이 원으로부터 정동성 낭중에 임명되어 귀국하였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려인 출신 원관료로서 성관에 파견되어 온 인물은 정동행성 설치 전기간 동안 5명에 불과하여 그만큼 비중이 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시 고려의 대원관계의 복잡성에 비추어 보아 충숙왕을 비롯한 국내 정치세력들은 원의 황실과 조정에 그대로 일정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염제신을 통하여 고려 정부의 대원교섭이 그만큼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리라 기대하였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염제신이 고려에 돌아와 가장 먼저 불법적 토지의 점탈로 발생한 전민(田民)의 소송을 해당관서에 되돌려준 일은 주목된다. 원래 전민의 소송은 해당관서가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토지를 점탈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친원세력이나 권세가, 행성관원(行省官員)이어서 범대로 처리될 수 없었으므로 전민의 소송이 정동행성으로 몰리게 되었는데, 염제신이 자신의 권한으로 이를 해당관서에 되돌려주고 소송의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게 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는 충숙왕으로부터 “청렴하다”는 평을 듣기도 하고, 또한 좌우사가 국가 공문서에 서명하기를 청하면 반드시 먼저 “우리 낭중이 서명하였느냐”고 묻고 서명할 정도

로 염제신에 대한 충숙왕의 신임은 대단한 것이었다.

한편 그는 이 시기에 충선·충숙왕 대 찬성사(贊成事)를 재내다가 수첨의정승(守僉議政丞)으로 치사한 배정(裴廷)의 딸과 처음 혼인하였으나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찬성사(贊成事)로서 충선왕 선위 후 원의 만권당(萬卷堂)에서 이제현(李濟賢)과 생활하면서 문명(文名)을 떨치고 심양왕 고옹립에 참여했던 權漢功의 딸과 재혼하여 廉國寶·興邦·延秀 등 3남5녀를 두었는데 여러 가문과 혼인관계를 통하여 권세가문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충숙왕 복위 8년(1339) 왕이 죽자 원에 들어가 원으로부터 의정사승(翊正司丞)을 제수받고, 충혜왕 복위 4년(1343)에는 원의丞相인 별가불화(別哥不花)가 천거하여 순제(順帝)로부터 관직제수를 보장받기도 하였지만 그는 어머니의 병환을 계기로 다시 귀국하여 충목왕 2년(1346)에 삼사우사(三司右使)와 상장군(上將軍)에 제수되고 수성의대공신(輸誠翊戴功臣)의 호(號)를 받고 도첨의평리(都僉議評理)가 되었다. 충목왕 3년에는 謢恩使로 원에 다녀오고, 이듬해에 왕이 12세에 어린 나이로 죽자 왕위 계승문제로 원에 들어간 政丞王煦를 대신해 기철과 함께 서무를 맡아 처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민왕과의 왕위계승에서 승리하여 왕위에 오른 충정왕대에는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에 임명되고 다음해에 성절사(聖節使)로 원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파란만장의 생애

—격동의 세월을 헤치고

염제신의 생애 2기인 충숙왕대로 부터 충정왕대는 원과 관련하여 사은사·성철사로 임명되어 대부분 고려 정부의 외교적 임무를 대신해 활약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정은 염제신이 원 조정에서의 정치력 발휘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3기인 공민왕대 및 우왕(禦王)대 염제신의 정치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것이었다. 특히 이 시기의 활동이 대부분 군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할 때 염제신과 공민왕과의 관계는 매우 깊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공민왕은 그 초기에 반원정책을 추진하고 고려의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던 때였다. 공민왕은 즉위 초기에 원의 간섭 배제와 국내정치의 안정이란 측면에서 원년과 5년 두 번에 걸쳐서 제개혁을 단행하는데 염제신은 바로 동왕 5년의 반원정책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민왕은 원에서 일정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염제신을 즉위 처음부터 등용하여 하였지만 공민왕 즉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던 조일신(趙日新)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염제신과 조일신은 조인규(趙仁規)의 외손과 친손이라는 혈연적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일신은 염제신의 등용을 반대하였다. 조일신의 반대는 원을 매개로 한 고려 국내에서의 상호간의 정치적 우위를 다투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조일신이 제거된 후 공민왕은 3년(1354) 1월에 염제신에게 단성수의동덕보리공신(端誠守義同德輔理功臣)의 호를 내리고 도첨의좌정승 판군부사사 상장군(都僉議左政丞 判軍簿司使)上將軍에 임명하였다. 당시 그의 관직에서도 짐작되듯이 그는 막강한 군사권을 부여받고 공민왕의 반원정책의 추진을 준비한 듯하다. 그러나 그는 이해 7월 원나라의 요청으로 내란의 평정을 돋기 위해 柳濯 등과 함께 그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원에 갔다가 10월 공민왕의 부름을 받고 귀국하여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공민왕 5년(1356) 5월에 친원세력인 기철 세력을 제거한 뒤 원나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9월에 서북면(西北面) 도통사(都統使)로 나갔으며 11월에는 3개항으로 된 국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6년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을 겸하게 되었을 때 여러 도에 염철별감(鹽鐵別監)을 파견하는 문제를 놓고 신진관료인 이색(李穡), 전녹생(田祿生), 이보임(李寶林), 정추(鄭樞)가 반대하였으나 염제신은 염철사(鹽鐵使)는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이라 하여 파견을 적극 주장하는 보수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동왕 8년에는 홍건적인 침입으로 어머니를 버리고 피난했다는 이유로 일연(臺鑑)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홍건적의 12차 침입으로 인해 국내 정치질서가 극도로 혼란하던 시기로 동왕 12년(1363) 김용(金鏞)의 공민왕 암살기도 사건(홍왕寺(興王寺)의 亂)이 일어나고, 원에 있으면서 덕흥군(德興君) 추대를 획책하던 최유(崔濡) 일파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보수적 무장세력이 대두하여 왕권을 약화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노국대장공규(魯國大長公主)의 죽음 등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은 공민왕은 동왕 14년 신돈(辛曄)을 등용하여 개혁정치를 단행하는 한편 동여부 정벌(東寧府 征伐)(동왕 19년, 20년)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염제신은 공민왕 13년(1364) 영도첨의(領都僉議)에 올라 있었으나 신돈과 사이가 좋지 않아 한때 파직되기도 하였다. 이후 공민왕 20년(1371)에 동녕부 정벌과 관련하여 서북면 도통사가 되었고, 이무렵 딸을 공민왕에게 납비(納妃)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민왕 23년(1374) 6월에는 텁라(耽羅)의 말 2천필을 요구하러 온 명사(明使) 임밀·채빈(林密·蔡斌)을 홀대하여 광천에 유배되고, 공민왕이 환자 최만생(宦者 崔萬生), 홍

릉(洪淵) 등에 의해서 시해된 뒤에 공민왕을 이어 즉위한 우왕대에는 즉위년에 영문하부사(領門下府使)가 되었고 동왕 2년(1376)에는 북원(北元)의 사신인 예부상서적희(禮部尙書翟欽)으로부터 선명자덕대부(宣命資德大夫) 장작원사(將作院使)를 받았으며 6년(1380)에는 영삼사사(領三司事)가 되어 관직활동을 하다가 우왕 9년(1383) 3월에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염제신은 원의 간섭기라는 외압에서 재편성된 고려의 정치구조의 변화와 여기에 부응하려는 가문의 환경 속에서 자라 어린 나이에 원에서 성장하면서 관직에 나아갔다. 그리고 귀국하여서도 고려 국내의 어려운 여러 여건 속에서 고려의 존속을 위해 고려 정부의 외교적 임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원과의 외교적 교섭을 원활히 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공민왕의 반원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원의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줄이려 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려-원 관계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고려의 자주성 회복이라고 하는 일관된 정책 속에서 그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이 시기 원과 결탁한 친원세력과는 남다른 모습을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忠敬公의 世壽

충경공 신도비명에는 충경공께서 탄생하신 해는 대덕갑진(大德甲辰) 충렬왕(忠烈王) 30년 10월 무신년(戊申生)이라 하였으나, 서력(西曆) 1309년(갑진년) 10월 무신일(戊申日)이다. 당시의 관례에 따라 음력일 것이고 戊申日이라니 역법(曆法)을 잘 아는 분이라면 알 수도 있겠으나 필자로서는 정확한 날짜를 내세울 수가 없다. 그리고 돌아가신 날짜 역시, 신도비명에 의하면 상지 9년(上之9年) 임술(壬戌) 춘삼월(春三月) 초이일(初二日)에 감질(感疾)되어 18일(十八日) 정묘(丁卯) 즐우(卒于)하시니 유언에 따라 3일장으로 20일(二十日) 기사(己巳)에 염강현(鹽江縣) 대곡자원(大谷之原)에 장우(葬于)하였다. 하였고 돌아가신 해에 세수가 칠십우구병(七十又九病)이고 년차칠십구의(年且七十九矣)라 했으니 79세에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생년(生年)에는 문제가 없으나 돌아가신 해가 상지9년(上之九年)이라면 우왕 9년이니 분명히 서력 1383년(계해년)에 틀림없고 임술(壬戌) 춘삼월(春三月)이란 구절이 임술년

(표 1) 염제신 연보일람

時 代		官 職 및 活 動
1 期	1304년(충렬왕 30) 1310(충선왕 2) 6세 1315년(충숙왕 2) 11세 1324년(충숙왕 11) 20세 1329년(충숙왕 16) 25세	10월, 부 세충(世忠)과 모 조씨(趙氏) 사이에 2남 1녀 중 2자로 출생. 부 사망으로 외조부인 조인규(趙仁規)의 집에서 자랐. 원에 들어가 평장사(平章事)인 고모부 말길(末吉)의 집에서 수학. 말길과 함께 진종(晉宗)의 어가(御駕)를 화임(和林)에서 맞이하고 진종이 숙위를 명함. 5월, 금강산 어향사(御香使)로 귀국, 왕에게 의주(衣酒)를 전하고 곧 원으로 들어가 상의사(尙衣使)를 제수받음.
	1333년(충숙왕 복위 2) 29세	모를 봉양코자 순제(順帝)에게 귀국을 청하여 정동성 낭중에 임명되어 귀국, 전민(田民)의 시송결제(詞訟決裁)를 소속관부에 되돌려 줌. 충숙왕의 죽음으로 원에 들어가 익정사승(翊正司丞)에 제수됨.
	1339년(충혜왕 복위 1) 35세 1343년(충혜왕 복위 4) 39세	절강성(浙江省) 회계중정원(會計中政院)으로 봉사하던 중 관리의 뇌물을 물리치자 승상(丞相) 별가불화(別哥不花)가 그의 청백(清白)을 순제(順帝)에게 아뢰어 천거하였으나 모의 병환으로 귀국. 강정대부(匡靖大夫) 삼사우사(三司右使) 상장군(上將軍)이 되고 명년(明年) 가을에 중대강사수성익대공신(重大匡賜誠翊獻功臣)의 호를 받고 도첨의평리(都僉議平理), 12월에 찬성사에 제수됨.
	1346년(충목왕 2) 42세	강정대부(匡靖大夫) 삼사우사(三司右使) 상장군(上將軍)이 되고 명년(明年) 가을에 중대강사수성익대공신(重大匡賜誠翊獻功臣)의 호를 받고 도첨의평리(都僉議平理), 12월에 찬성사에 제수됨. 6월, 사은사로 원에 다녀옴.
	1347년(충목왕 3) 43세 1348년(충목왕 4) 44세	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가 되고 명년(明年)에 왕위 계승문제로 원에 간 왕후(王煦)를 대신하여 정무를 처리함.
	1349년(충정왕 1) 45세	10월, 중대강도첨의찬성사판판도사사(重大匡都僉議贊成事判版圖司事)가 됨.
	1350년(충정왕 2) 46세	12월, 성질사(性質司)로 원에 다녀옴.

1354년(공민왕 3) 50세	조일신(趙日新)의 사감(私感)으로 등용되지 못하다가 공민왕의 요청으로 1월에 단성수의동덕보리공신(端誠守義同德輔理功臣) 벽상삼한중대강(壁上三韓重大臣) 도첨의좌정승(都僉議左政丞) 판군부사사(判軍簿司事) 상장군에 임명, 2월 우정승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가 되고 곡성부원군에 봉해짐. 7월 원의 요청으로 남정군 2천을 이끌고 장사성(張士誠)을 토벌하러 원에 들어갔다가 10월 공민왕의 부름으로 귀국함. 7월, 공민왕의 개혁정책에 따른 원의 압력으로 인당(印鑄)을 처형하는 데 관여하여 처리함. 9월, 서북면 도원수에 임명. 11월, 관부 의동삼사상주국수문하시중(關府儀同三司上柱國守門下侍中) 상장군 판병부 사령관이 되고 곧 이부사령(吏部事領)에 재배(再拜), 이때 군무책을 올림.		
1356년(공민왕 5) 52세	홍건적의 침입으로 모를 버리고 피난하여臺練의 탄핵을 받고, 김용(金鏞)의 인호(姻好)로 인해서 연루되어 파직됨. 벽상삼한삼중대광곡성후(壁上三韓三重大匡曲城侯)가 됨. 좌정승에 임명됨.		
1359년(공민왕 8) 55세	1월,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司事)가 되고 9월에 서북면 도통사가 됨.		
1362년(공민왕 11) 58세	1364년(공민왕 13) 60세	1369년(공민왕 18) 65세	삼중대광 및 곡성백(曲城伯)이 됨.
1371년(공민왕 20) 67세	9월에 서북면 도통사가 되었으며		
1374년(공민왕 23) 70세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가 되고 6월에 광주에 유배됨.		
1375년(우왕 1) 71세	충성수의동덕논도보리공신(忠誠守義同德論道輔理功臣) 영삼사사(領三司事)가 됨.		
1377년(우왕 3) 73세	도총도감훈련오부병마(都轉都監訓鍊五部兵馬)를 설치하고 이 일을 맡아 봄.		
1380년(우왕 6) 76세	영삼사사(領三司事)가 되고 겨울에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에 봉해짐.		
1383년(우왕 9) 79세	3월에 죽음. 시호는 충경(忠敬)		

(壬戌年)이라면 서력 1382년이다. 춘삼월이라면 음력이 양력보다 늦게 온다고 해도 서력으로 전년(前年)일 수는 없다. 때문에 세수(世壽) 79세라면 상지9년(上之九年)이 맞지 않고 상지9년(上之九年)이 틀림없다면 세수는 80세이다. 요새식으로 만(滿) 몇세로 쳤다면 모르되 공의 부(父) 이신 휘세충(諱世忠)께서 공(公)이 6세때인 1309년(을유) 11월 28일에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음을 보면 당시 통례상 나이를 만으로 계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상지9년(上之九年) 임술춘삼월(壬戌春三月) 한 데서 임술(壬戌)이 문제인데 상지9년(上之九年) 즉 우왕9년은 임술(壬戌)이 아니고 계해년(癸亥年)이다. 그렇다면壬戌은 3월의 월간이 아닐까도 싶다. 그리고 상지9년(上之九年)에 돌아가셨는데 비명에는 두 번씩이나 79세라고 하였으니 필자의 고집으로는 왕명에 의해 이색이 지은 글에 왕의 연대(年代)가 틀렸을 리 없다고 한다면 상지9년(上之九年)은 서력 1383년(癸亥年)이니 충경 공의 세수는 80세였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록에 따라 임술년(壬戌年)(1382년)에 79세로 돌아가신 것으로 함이 좋을 듯하다.

비단보에 싸들고 나온 家帖

〈염종환 記〉

廉根壽씨의 문학과 족보

흰 수염이 가슴 밑까지 흐르고 귀를 덮은 백발이 은색으로 출렁이는 동안은 30년을 함께 한 청려장이 어울리지 않을 만치 87세의 근수(根壽) 옹은 노의장의 근력이다.

그 동안 매스콤을 통해서만 알고 있던 선생을 강릉 경근(京根)씨를 통해 수소문한 끝에 종친회분들과 처음 만난 것은 조계사 경내서였다. 미염동안(美鬢童頽)의 신사라는 첫 인상의 할아버지는 이산가족을 재회하듯 우리 일행을 기쁨으로 끌어안을 듯 반겼다.

선생은 1907년 황해도 백천(白川) 태생으로 소년기에 단신으로 상경하

여 고학을 했다. 양정고보 2년 때인 1921년 동아일보에 「피바다」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시단에 나섰다. 1925년 이후 청소년 잡지 〈별나라〉와 아동문학지 〈새벗〉의 주간으로 일하였고, 동인지 〈習作時代〉, 종합 잡지 〈백두산〉을 발행하기도 했으며 조선일보에서 기자생활도 했었다.

1931년 이후 처가인 강릉에 거주하면서 정선아리랑을 체득하고 그곳에서 전통농악 보존에도 힘써 전국 농악경연대회에 출연하기도 했다.

조실부모하고 혼자 타향에 살았기 때문에 문중 일에 관심을 가질 틈도 없었고 더욱이 족보도 갖추지 못했다 면서 첫머리에 「용담염씨 동정공파」라는 제목에 중간계대가 생략

된 가첩(家帖)을 보여준다. 이것마저 작고한 숙부께서 써주신 것을 자식들에게 두루 나누어주려고 복사했다는 것이다. 필사본의 원본 가첩을 보기 위해 얼마 전까지 함께 기거한

3남 기환씨 집을 방문했다. 삼각산 바로 밑 한가한 별장같이 아담한 정원, 고풍스런 서재도 인상적이다. 조금 후 그의 머느리가 자색보에 정성스레 써여진 가첩을 상에 반쳐 모셔나오는 것을 보고 격동기에 단신으로 타향에서 자수성가하면서도 자녀를 훌륭히 가르친 가문의 교육을 엿볼 수 있었다.

염근수 옹은 1940년대 부터 써온 동시 1천여 편 중에서 92년에 염근수 풍물시집 「서남굿」 「물새발자욱」을 출판하였고, 92년 10월에 새싹 회가 주는 20회 문학상을, 93년 5월에는 제6회 대한민국 동요대상을 받는 등 그 동안 국내외의 일간신문, TV 심지어 일본에까지 소개되었다. 아

동문학가인 정원석씨는 선생의 작품을 중심과 리듬의 축제라며 이 시집의 출현으로 한국 동요문학사는 다시 써져야 할 것 같다고 극찬을 하고 있다.

삼각산 밑 그의 아들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나오면서 가첩의 생략된 중간계대를 찾아 완전한 가첩을 마련해 드려야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선생의 동시 「물새발자욱」을 소개한다.

고요한 아침바다
모래 물가에
종종걸음 발자욱
물새발자욱

무어라 써놓은
글은 글인데
잔물결이 사르르
지워버려요

너무 예쁜 조갑지
동그란 구멍
어찌면 이렇게도
동그릴까요

그 이야기 써놓은
글이 아닐까
잔물결이 사르르
지워버려요



지금이 뿌리를 공부할 때다



廉基璽(23세손)

닭이요, 뿌리로 느끼지 않게 되어 버렸다. 자신의 혈통이나 씨족의 내림을 아는 청소년이 별로 많지 않다. 대학 입시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집안의 내력이며 어느 파의 몇 대손임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예사요, 아버지란 사람도 들어보고 익힌 적이 별로 없으니 아들에게 일러줄 뿌리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이 집집마다의 사정이었다.

훌륭하게 뻗어나가는 내일을 도모한 지혜를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다. 한 집안의 어떤 선조가 어떤 시대를 살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생각을 품고 일생을 마쳤는가. 또 그 선조가 부딪쳤던 일에 어떤 고민을 했으며, 삶을 어떻게 실천했던가를 아는 것이 다름 아닌 가족사(家族史)

인식이다. 우리의 사회사나 정치사, 넓게 보아 문화사도 여러 혈통의 가족사의 집합이라고 봐야 한다. 집안의 뿌리를 알고, 같은 뿌리에서 난 혈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쟁겨보는 것이 우리 현대사 공부, 바로 그것이다.

족보나 종친회라는 것은 사회활동을 마쳤거나 아니면 예순 고비에 접어든 황혼기 퇴역 직전의 장로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김이 거의 고정관념으로 굳어버렸다. 한마디로 젊은이들의 관심사에서는 아주 밀려나 있는 현실이다. 자기 집안의 가족사를 배우고 익히는 공부와 후손에게 뿌리를 인식시키는 노력을 언제까지나 사회 일선에서 한발짝 물러선 어른들에게만 의존할 것인가.

집안에 길흉사가 났을 때나, 무슨

큰일을 도모할 때나 도움을 얻고 싶은 일이 생기면 찾고 쟁기는 것이 일가친척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를 사는 것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보통이다. 몇 년 만에 찾는 귀성길에서도 당자마자 돌아갈 걱정부터 하면서 종친이나 종가집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은 예사로 건너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속절없는 삶의 모습이다. 힘들고 까다로운 종친 행사는 종친회의 어른들이나 종가집의 일인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자신의 자녀 공부에 지장을 준다고 자녀들과 폐어놓고 싶어하는 것이 대도시의 소시민들이다. 그들에게 적계기족이

란 아내와 자녀뿐이지 그의 부모는 제외되어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형편이다.

출가한 딸에게도 친정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우리나라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씨와 혈통을 소중히 여겨왔던 민족이다. 뿌리에 대한 의식이 이토록 철저한 민족도 지구상에 흔치 않다. 자손들에게 뿌리의 근원을 알리고 그들의 소속감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가족사 공부를 시키자면, 자식을 둔 아버지가 일가와 집안의 조상들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더 늦지 않은 때이다.

핵가족으로 분열된 삶의 모습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그들에게 혈통이란 적계기족으로 좁혀지고 말았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살아나가는 데 별로 불편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 삶의 행태는 할아버지의 합자를 아버지에게서 겨우 들어서 외우고 있을 뿐, 살아계신다고 해도 자신이 세상에 나와 있음의 까

白衣社 총사령관 廉應澤

1946년 3월1일 오전 11시경 평양역 광장에서는 7만여 군중이 모여 3·1절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었다. 식장 중앙부에는 소련군정의 수뇌부와 김일성(金日成), 김책(金策), 최용건(崔庸健), 김두봉(金科奉) 등 당시 북한 공산세력의 중심인물들이 자리해서 식이 한창일 때 한 청년이 군중 속에서 식장 중앙부로 다가와 김일성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수류탄은 중앙부에 이르지 못하고 연단 아래 떨어져 작렬하는 순간, 식장은 일시에 수라장이 되었다. 소련 경호원이 쓰러지고 하는 통에 김일성은 소련 헌병들의 경호를 받으며 혼비백산하여 식장을 떠났다. 이 사건은 45년 11월에 있었던 신의주 학생의거사건과 더불어 해방 후 북한 정권수립 전까지 있었던 반공 반소의 2대사건이라 하겠다.

이때는 1945년 12월27일 모스크바

에서 미·영·소 3국의 외상회의가 열려 한반도에 대해 독립에 앞서 5년간 신탁통치를 한다는 안이 발표되어 남북의 각 사회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했고, 마침내 1946년 1월30일 신탁통치를 위한 미소공동위원회의 성명이 발표되면서 민주 자유진영에서는 신탁을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졌다. 공산측에서는 찬탁 쪽으로 결정되어 남북을 막론하고 군정하에 있으면서도 사회 내부의 질서는 혼미를 거듭하고 있었다.

중국에 망명하다 환국한 김구(金九), 김규식(金奎植), 조소앙(趙素昂), 신익희(申翼熙) 등 임정요원들은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정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정부를 세워 소연방 영향하에 둔다는 의도가 확실해지자 김일성 일파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방침을 세워 이에

따라 신의회를 본부장으로 하는 정치공작대를 조직하고 임정산하 지하단체인 백의사(白衣社)의 지원을 받아 이북에 공작대를 밀파하는 준비가 진행되었다.

중국이 항일전쟁 때 장개석(蔣介石)이 조직지휘한 남의사(藍衣社)는 지하공작대로서 오늘날의 정보활동과 유격전 등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그 활동상이 눈부신 바 있었다. 이 남의사를 본받아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뜻으로 임정 진영에서 백의사(白衣社)를 조직하였는데 이때 백의사의 총사령관이 염응택(廉應澤)(일명 廉東震)이다. 그는 평남(平南) 출신으로 서울의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낙양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국군에 복무하면서 임정의 신익희(申翼熙), 김원봉(金元鳳) 등과 함께 조국광복운동에 참여하였다. 1943년에는 평양에 잠입해 모란

봉 아래 永明寺에 은신하면서高峰 스님과 함께 항일비밀단체인 대동단(大同團)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해방 후 환국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반소 반공운동을 하다가 소련군에 탐지되어 검거되기 직전, 일부 단원들과 함께 45년 12월에 서울로 피신하여 같은 목적의 활동을 하다가 남쪽으로 피신한 애국청년들과 학생을 규합하여 45년 12월에 백의사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46년 2월 중순경 임정 정치공작대는 조중서(曹仲瑞), 김정의(金正義), 김형집(金亨集), 최기성(崔基成) 등 대원에게 임무를 주어 밀파함에 있어 신의회는 이들에게 회중시계와 모자 등을 주며 격려했고 백의사의 염응택 총사령관은 권총 1정을 주며 지시를 하였다. 밀파된 대원들은 46년 3월1일 평양역전에서 김일성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게 된 것이다. 사건 후 수류탄을 투척한 김형집은 현장에서 소련 경비병에게 체포되었고 나머지 대원은 혼란을 틈타 몸을

피했다. 그 후 이들은 김일성에 대한 경호경비가 더욱 강화되어 암살은 어렵다고 보고 최용건(崔庸健), 김책(金策)과 강양우(康良煜) 등 김일성의 날개이며 임시인민회의의 핵심세력에 대한 암살을 결심하고 한동안 이른바 '피의 투쟁'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선생의 활동상을 찾지 못한 점인바 미비한 점과 찾지 못한 점은 꼭 누군가에 의해서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편집 후기

5년만에 6호를 내 놓으면서 그동안의 공백으로 언론을 이어 가기가 어려웠다. 다시 시작하는것이니 면목을 일신 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한정된 능력으로 힘이 드렸고 원고가 부족하여 지면 채우기 급급했기에 앞으로 여러 일가의 많은 투고와 지도편달을 바라며 속간을 위한 경비를 전달해주신 在熙회장님 그리고 편집·교정은 물론 여러분으로 도와주신 조선일보 출판부장 基溶씨께 감사드린다.

(편집인)